



##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The organization of the article of 'MyungrangSinin' in the Samgukyusa and the problem of the Sinin-Jong establishing

---

**저자  
(Authors)** 김복순  
Kim, Bok-soon

**출처  
(Source)**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2](#), 2011.6, 201-228(2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08866>

**APA Style** 김복순 (2011).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2, 201-22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1 10:3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김복순\*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사천왕사 창건  |
| II. 금광사와 명랑    | IV. 신인종의 성립문제 |
| 1. 금광사와 그 호칭문제 | V. 맺음말        |
| 2. 명랑과 용궁      |               |

[한글요약]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에는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로 a) 金光寺本記, 本寺記, b) 僧傳 c) 文武王傳(인용) d) 埃白寺柱貼注脚이 나오고 있다. 간단한 자료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료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본고는 이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이 자료에 나오는 금광사, 금강사, 금우사는 모두 한 사찰의 異稱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 『고려사』에 보이는 ‘金剛明經道場’ 등의 용례를 살펴 보았다.

둘째로 명랑의 어머니가 낳은 청색구슬을 삼키는 태몽은 그가 훌륭한 승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2008, 『신사조로서의 신라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2002, 『한국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0, 『신라 화엄종연구』, 민족사; 2010, 「최치원의 역사인식연구」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최치원의 지증대사적조탑비문 비교 연구」 『신라문화』 3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신라와 고려의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4, 한국고대사연구회;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려가 될 예지로 보았다. 그의 어머니인 남간부인은 소판 김무림의 딸로, 자장법사의 누이동생인 법승량으로 불린 진골이었다. 남간사는 현재 당간 지주만 남아있는 경주 남산의 폐사지로, 이 일대가 이들의 장원 내지 영지였을 것으로 보았다. 명랑이 유학을 다녀온 용궁이 인도 내지 동남아 방면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았다.

세제로 사천왕사 창건과 신인중 성립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보았다. 사천왕사의 창건은 이미 640년 이전 안함에 의해 예견된 사실로, 그 후 선덕여왕이 도리천에 장사지내라는 예언으로 그 입지가 더욱 굳혀졌고, 수십년 후 명랑에 의한 문두루비법의 실행으로 창건이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신인중 성립의 문제는 신라성립설과 고려조 성립설을 비교하고, 신라성립설에 무게를 실어 살펴보았다.

[영문요약] The article of 'MyungrangSinin' in the 『Samgukyusa』 was comprised of the following data. It's a) Kumguangsabongi b) Sungjeon c) Munmuwangjeon d) Dolbaeksajuchupjukak and etc. Relatively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very simple. However this fact informs to include the very important materials. This paper studied the following contents by the analysis of these datum.

First, the writer concluded that other names attached to the same temple in which, the name of the temples mentioned above article so called Kumguangsa, Kumgangs, Kumusa is identical were. The writer presented the basis as 'Kumguangmyungkyung Doryang' etc., that recorded in 『Koryosa』.

Second, there was the content when the mother of the Myungrang was pregnant with him in the article, that it had a dream engulfing the blue bead. The writer can be interpreted the dream as the sort of the prediction that her son will become prominent Buddhist monk, when he grows up.

Mrs. Namgan, the mother of the Myungrang, was the daughter of the Sapan KimMurim, and the younger sister of the Buddhist priest Jajang, and Jin-gol nobility called as Bubsungrang.

The temple which the Mrs. Namgan founds was vanished. However the Dangganjju (The banner-pole supports) indicating the location of this temple remains still in Gyungju area foot of Mt. Namsan. This Dangganjju is the evidence estimating the ancient location of Namgansa temple.

Therefore as to the writer, this region where there is Dangganjju seemed to be the manor or a feud of this family. And the writer estimates that the Palace of

the Dragon King, said as the country on the road which Myungrang comes back from the studying abroad, was the country on the India or Southeast Asia direction.

Third, the writer inquired the foundation of the Sachyunwangsa temple and the problem of Sinin-Jong establishing in the other angle once again. In the foundation of the Sachyunwangsa temple, there is a series of background. This background, firstly, it was the prescience by the Buddhist priest Anham. It was the task in which secondly thereafter Queen Sundok designates its own grave site as the Kausika Heaven. Thirdly it was again the performed work of the Munduru mystique by Myungrang after the several years. And comparing Shilla establishing argument with the Koryo Dynasty establishing argument, the problem of the Sininjong establishing put the authenticity on the former.

[주제어] 명랑신인(明郎神印, Myungrang-Sinin), 명랑(明郎, Myungrang), 신인종(神印宗, Sinin-Jong), 사천왕사(四天王寺, Sachyunwangsa), 금광사(金光寺, Kumguangsa), 금강명경도량(金剛明經道場, Kumguangmyungkyung Doryang), 문두루비법(문두루秘法 the Munduru mystique)

## I. 머리말

명랑법사는 신라 문무왕대에 문두루비법을 써서 당나라의 수군을 격퇴한 사실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전기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삼국유사』 권5 神呪편의 ‘명랑신인’조이다.

명랑과 신인종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논고가 나온 바 있다. 이들을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명랑신인’조의 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금광사와 사천왕사, 신인종 성립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명랑신인’조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내용은 그가 세운 金光寺의 창건과 관련된 사실이다. 금광사는 금광사의 에도 금강사.

금우사 등 다양한 호칭이 문제로 제기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려사』에 나오는 '금강명경도량'의 존재와 『십륜경』 그리고 西京의 금강사에 주목하여 금광사의 호칭문제를 천착해 보려 한다. 또한 그의 용궁전법 사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둘째로 그가 문두루비법을 행했던 곳에 건립된 사천왕사가 안함 당시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장소라는 사실 등을 함께 언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신인종의 성립문제를 명랑이 신인종조사로 추대된데 따른 신인종의 신라성립설과 고려 태조 대에 창건된 현성사 등으로 인한 고려성립설을 정리해 보려 한다. 안혜·낭응의 후예 광학·대연이 고려 태조를 도와 현성사의 창건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도 원원사 등이 나오고 있어 이를 정리해 보려 한다.

## II. 금광사와 명랑

### 1. 금광사와 그 호칭

금광사는 명랑이 유학에서 돌아와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만든 사찰이다. 그런데 이 금광사는 사료 상으로 여러 호칭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일연 당시부터 지적되어 왔다. 우선 관계 사료를 보자.

(1) 『金光寺本記』를 살펴보니, “법사는 신라에서 태어났다. 당나라에 건너가 도를 배우고, 돌아올 때에 해룡의 청으로 용궁에 들어가 秘法을 전하였다. 황금 천냥(천근이라고도 함)을 시주받고, 지하로 潛行하여 자기 집 우물 밑으로 솟아 나왔다. 이에 (집을) 회사하여 절을 세우고 용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裝飾하니 유달

리 광채가 빛났다. 이로 인하여 금광사(僧傳)에 金羽寺라고 하였으나 잘못임)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sup>1)</sup>

(2) 또 신인조사 명랑이 金剛寺를 새로 창건하고 낙성회를 베풀었을 때, 고승들이 다 모였지만 스님(혜공)만 오지 않았으므로 명랑이 분향하고 정성껏 기도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혜공스님이 왔다. 그 때에 큰 비가 내렸는데 그의 옷이 젖지 않았고 발에는 진흙이 묻지 않았다. 명랑에게 이르되(은근히 부르기에 왔다)고 하였다.<sup>2)</sup>

위의 사료에 보이는 『금광사본기』에는 금광사와 금우사가, ‘이혜동진’조에는 금강사가 명랑과 관련된 사찰의 명칭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각각의 호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광사라는 호칭으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신라에서 태어난 명랑이 632년(선덕왕 1)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밀교의 비법을 배우고 3년 만인 635년에 귀국하였고, 귀국 길에 해룡의 청으로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였으며, 용왕으로부터 황금 1,000냥을 시주받아 탐과 불상을 장식하자 유난히 광채가 났기 때문에 금광사로 불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전하는 『금광사본기』는 금광사의 寺誌로 추정된다. 이 기록에 따르면 금광사라는 사찰의 명칭은 용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탐과 불상을 장식하여 광채가 특별히 빛났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다음은 금우사라는 호칭이다. 이는 각훈의 『해동고승전』으로 추정하고 있는 승전에 기재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사라는 호칭이다. (2)는 명랑이 금강사를 창건하고 낙성식을 베풀었을 때의 상황을 그린 것으로, 신라의 고승들이

1)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

2) 『삼국유사』 권4, ‘이혜동진’조.

다 모였는데 혜공만 오지 않자 명랑이 분향하고 기도하므로 혜공이 낙성식에 참석한 사실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명랑이 창건한 사찰은 금광사, 금우사, 금강사로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금우사는 일연이 승전에서 금광사를 金羽寺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주석을 달아 정정하고 있어 이후 별다른 언급들이 없어 왔다. 그러나 이 호칭은 잘못 기재했다기 보다는 당시인들에게 사찰의 탑과 불상이 금으로 번쩍이는 것이 금빛 날개와 같이 보여 붙여진 별칭이 아닐까 한다.

반면 금광사와 금강사를 같은 사찰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두세 가지의 입장이 표출되어 있다. 하나는 같은 사찰로서, 금강사는 금광사의 오기로 보는 경우이고,<sup>3)</sup> 다른 하나는 두 사찰을 다르게 보는 견해이다.<sup>4)</sup> 그런데 금광사 내지 금강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들이 주목된다.

하나는 『고려사』에 보이는 ‘金剛明經道場’ 등의 호칭이다.

『고려사』 정종 7년 5월 경오에 “금강명경도량을 문덕전에 설하고 비를 기원하였다”는 내용을 필두로 다음 표에 나오는 것과 같이 관련 기록이 보이고 있다.

- 
- 3) 문명대, 1976, 「신라 신인종 연구」 『진단학보』 41, p. 191; 김상현, 1996, 「사천왕상의 창건과 의의」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논문집-신라와 낭산-』 1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 134~135; 한정호, 2010, 「신라 쌍탑 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 p. 185.
  - 4) 고익진, 1989, 「초기 밀교의 발전과 순밀의 수용」 『한국고대불교사상사』, p. 404.

\* 표5)

	연도	도량 명칭	도량 개설장소	기 간	출전1	출전2
1	1041.5	금강명경도량	문덕전		고려사 권6 정종 7년	고려사 권54 오행2
2	1047.8	금강도량	문덕전	5일	고려사 권7 문종 원 년	
3	1048.8	금강명경도량	회경전		고려사 권7 문종 2년	
4	1052.6	금강도량	문덕전		고려사 권7 문종 6년	고려사 권54 오행2
5	1074.7	문두루도량	동경 사천왕사	27일	고려사 권9 문종28년	
6	1083.10	금강명경도량	건덕전		고려사 권10 선종 즉 위년	
7	1085.2	금강경 도량	건덕전	7일	고려사 권10 선종 2 년	
8	1085.5	금강명경도량	건덕전	7일	고려사 권10 선종 2 년	고려사 권54 오행2
9	1087.4	금강경 도량	건덕전	7일	고려사 권10 선종 4 년	고려사 권54 오행2
10	1096.5	금강경 도량	건덕전		고려사 권11 숙종 원 년	고려사 권54 오행2
11	1100.6	관정·문두루· 보성등 도량				고려사 권54 오행2
12	1106.6	금강경 도량	건덕전		고려사 권12 예종 원 년	
13	1107.5	금강경 도량	개국사		고려사 권12 예종 2 년	
14	1108.7	문두루 도량, 사천왕 도량	동계 진정 사 비사문사		고려사 권12 예종 3 년	
15	1109.4	문두루 도량	평양의 홍복사·영 명사·장경 사·금강사		고려사 권13 예종 4 년	

5) 이 표에 기재된 고려시대에 설행된 도량들은 대개 적의 침입을 물리치거나 祈雨 등을 위해 설해졌는데, 신라 시대와 같이 문두루도량, 사천왕도량의 호칭들도 보이므로, 관련 기록 가운데 신인종과 관련있을 문두루도량, 사천왕도량, 현성사관련 도량 등의 사료들도 함께 적출하여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16	1110.9	금강경 강독	연흥전		고려사 권13 예종 5년	
17	1120.2	금강경 강설			고려사 권14 예종 15년	
18	1140.윤6	금강경 도량	금명전		고려사 권17 인종 18년	고려사 권54 오행2
19	1217.4	문두루 도량	현성사		고려사 권22 고종 4년	
20	1217.12 경신일	사천왕 도량	선경전		고려사 권22 고종 4년	
21	1217.12 임술일	문두루 도량	현성사		고려사 권22 고종 4년	
22	1227.4	금경 도량	선경전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23	1256.11	금경 도량			고려사 권24 고종 42년	
24	1271.10	금강 법석	내전		고려사 권27 원종 12년	

위의 표에 나오는 도량들을 살펴보면, 우선 ‘금강명경도량’은 1·3·6·8로 고려 선종 대까지 설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2·4의 ‘금강도량’과 7·9·10·12·13·18의 ‘금강경도량’이 문덕전과 건덕전 등에서 개설되고 있고, 비를 비는 목적이 간혹 보이고 있어,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 이들을 모두 같은 ‘금강명경도량’으로 분류해도 될 듯하다. 또한 22·23의 금경도량은 金經이 『금광명경』의 약칭이므로 역시 ‘금강명경도량’으로 볼 수 있겠다. 그 외의 것은 신인종의 ‘문두루도량’과 ‘사천왕도량’이 신인종의 종찰인 현성사에서 개설된 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호칭은 약간 달리 표기되었지만 고려에서 ‘금강명경도량’이 계속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강명경이라는 경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16·17에 연흥전에서 강설하였다고 나오는 『금강경』과는 그 내용을 완전히 달리한다.

그런데 ‘금강명경도량’에서는 금경의 호칭이 보이듯 『금광명경』

을 텍스트로 하여 도량을 개설하였을 것이므로, 금강명경은 『금광명경』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금광명경』과 금강명경은 고려시기에 같은 의미로 섞어 썼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금광사와 금강사는 결국 같은 도량의 이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십륜경』의 금강장보살의 등장과 관련한 사실이다. 『십륜경』은 『대승대집지장십륜경』으로 대표적인 호국경전의 하나이다. 내용은 남방에서 온 지장보살을 대상으로 여래가 汚濁惡世에서 능히 법륜을 굴러 원적을 제압하고 번뇌를 멸하여 중생들을 삼승의不退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십륜을 성취한 때문이라고 보고, 여래 십륜은 관정찰제리왕이 능히 외적을 멸하여 국토를 수호하는 관정왕십륜에 비유하고 있으며, 여래십륜을 하나씩 설해가는 내용은 업설을 기초로 한 아함경의 교리가 주가 되어 있다 한다.<sup>6)</sup> 이 『십륜경』의 후반부는 금강장보살을 대상으로 설한 내용이어서 금강장보살을 금강사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7)</sup> 이에 더하여 신라 하대에 나오는 오대산신앙에서 남대의 지장보살을 상주자로 하여 금강사를 둔 것을 명랑과 연관짓기도 한다.<sup>8)</sup> 그런데 신라의 신방이 651년 경에 쓴 『대승대집지장십륜경서』가 현재 전해지고 있어<sup>9)</sup> 명랑을 전후한 시기에 『십륜경』이 유행하였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6) 고익진, 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p. 402.

7) 고익진, 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p. 405에서 금광이라는 말은 『관불삼매해경』, 『금광명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금강사는 『십륜경』의 금강장보살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8) 문명대, 1976, 『신라신인종 연구』 『진단학보』 41, pp. 191~192.

9) 허남진 외, 2005, 『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 서울대출판부, pp. 212~213, 당의 현장이 영취 2년인 651년에 총10권으로 번역하였다고 하나, 이 서문에 의하면 신방이 현장의 자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번역하고 서문을 쓴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혹 ‘금강명경도량’은 『금광명경』과 『십륜경』의 금강장 보살이 합해져서 ‘금강명경도량’이 된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사실을 들어보면. 고려의 서경에 있던 금강사의 존재이다. 이규보가 한림원에 있을 때 작성한 「서경 금강사 문두루도량문」<sup>10)</sup>은 고려 강종이 즉위할 당시에 이 곳 금강사에서 「문두루도량」을 열어 즉위 초 왕권의 안정과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11)</sup> 이 금강사는 바로 신인종의 사찰로, 명랑의 금강사와 같은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세 가지 사실로 볼 때 금광사와 금강사, 두 사찰의 호칭은 한 사찰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도, 명랑이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금광사로 조성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찰을 창건했다는 것은 무리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찰은 당시 황금으로 치장하여 유달리 빛났기 때문에 금광사, 금강사, 금우사 등 다양한 호칭이 채록되어 전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3개의 호칭은 명랑이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만든 한 사찰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명랑과 용궁

명랑은 이름이고 자는 국육, 아버지는 사찬 김재량이고 어머니는 남간부인이다.

---

10) 『동국이상국집』 권29, 「서경 금강사 문두루도량문」.

11) 한기문, 2000, 「고려시대 개경 현성사의 창건과 신인종」 『역사교육논집』 26, p. 489.

(3) 법사의 이름은 명랑이고, 자는 國育이니, 신라 沙干 才良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南澗부인으로, 혹은 法乘娘이라고도 하는데, 소관 茂林의 딸인 김씨로서 자장법사의 누이동생이다. 세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國敎 대덕이요, 차남은 義安 대덕이요, 법사는 막내이다. 처음에 그 어머니가 꿈에 청색 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sup>12)</sup>

남간부인은 소관 김무림의 딸로, 자장법사의 누이동생인 법승량<sup>13)</sup>으로 불린 진골이었다. 남간부인은 남간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간사는 현재 당간지주만 남아있는 폐사지인데, 바로 윗쪽이 탐곡<sup>14)</sup>으로 넘어가는 남산 기슭이다. 또한 신유림도 탐곡 일대와 마주 보이는 곳으로, 남간사 당간지주가 있는 일대가 이들의 장원 내지 영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명랑은 어머니가 청색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고 태어났다. 승려들이 태몽으로 보주를 삼키거나 본 사례는 가끔 보고되고 있다. 신라 말 통진대사 경보는 모친이 흰쥐가 청색구슬 한 알(靑琉璃珠 一顆)을 물고 와서 주면서 가슴에 잘 간직하여 보호하면 세상에 드러날 때 빛 무리를 휘뿌릴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고,<sup>15)</sup> 선각국사 도선은

---

12)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

13) 법승량은 시집가기 전 자장의 누이로 불린 이름이 아닐까 하는데, 낭에 대해서는 대량이라 하여 왕비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보나, 젊은 여인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한다.

14) 문명대, 1977, 「신라사방불의 기원과 신인사(남산탐곡 마애불)의 사방불-신라사방불연구1-」 『한국사연구』 18, p. 73. 금광사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탐곡은 신인사명 기와의 발견으로 신인사로 금광사와의 관련성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탐곡 너머 남간사 일대가 김재량과 법승량(남간부인)의 영지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탐곡을 위하한 남간사 일대가 그 주변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5) 「옥룡사 통진대사 보운담비」.

모친에게 어떤 이가 밝은 구슬 한 알(明珠 一顆)을 주면서 삼키라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태어났다.<sup>16)</sup> 또 징효대사 절충은 천녀가 보배로운 구슬(寶珠)을 주는 꿈을 꾸고 태어나 7세에 걸식승을 보고 출가하고 있다.<sup>17)</sup> 청색구슬 내지 명주, 보주는 야명주 내지 여의주로서 진리의 한 상징으로 표현되므로, 이미 진리를 선양할 인물이 될 것이라는 징조를 예견한 꿈이라 하겠다.

외삼촌 자장법사는 당 유학 후 대국통으로 활약하였으나, 김춘추의 개혁에 밀려 진덕여왕 대에 중앙에서 물러나 태백산지역에 머물다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의 조카들도 크게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문무왕대에 이르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김천존에 의해 천거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활동을 재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명랑은 3형제 가운데 막내로, 큰 형이 국교대덕이고 작은 형이 의안대덕이다. 국교대덕은 별다른 활동이 보이지 않지만 대덕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왕의 자문역을 하였을 것이고, 의안대덕은 문무왕대에 대서성을 지낸 의안대서성이다.<sup>18)</sup> 진흥왕대에 처음 안장법사를 대서성으로 임명한 이래 진덕여왕 대에 1명을 더하여 2명의 대서성이 있었다.<sup>19)</sup>

의안대덕은 명랑이 문두루비법으로 당의 수군을 물리친 670, 671년 이후인 674년에 대서성에 임명되고 있어, 문무왕 대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활동을 재개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이 674년은 신라에서 외위가 경위로 흡수되어 소멸된 해로, 의안대서성은 신라인들이 내외를 막론하고 고구려·백제인까지를 포괄한<sup>20)</sup>

16) 『옥룡사 선각국사 혜등탑비』.

17) 『홍령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18)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4년 9월 命義安法師爲大書省.

19) 『삼국사기』 권40, 직관지 하 무관조.

20) 673년으로 추정되는 癸酉銘阿彌陀三尊四面石像은 연기군과 그 인접지

일통삼한의 신라를 만들기 위한 중심에서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금광사와 명랑은 용궁과 밀접한 관계가 엮보인다. 금광사는 명랑이 귀국 길에 간 용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곳에서 시주받은 황금 천 냥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해서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궁은 어디고 용왕은 누구였을까.

(4) 이보다 앞서 밀본의 후예 고승 명랑이 있었는데, 용궁에 들어가 신인(범서에 문두루라 하였는데 여기는 신인이라 하였다)을 얻어 신유림을 세우고 여러 차례 이웃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도록 빌었다<sup>21)</sup>

---

역에서 癸酉銘千佛碑像 등 7개나 되는 불비상이 발견되었다. 모두 흑회색의 납석제로 조각 수법과 상의양식도 같아 ‘연기파 불비상’으로도 불리는데, 673~689년 사이인 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것은 신라의 의도적 후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 대한 신라 조정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불비상의 내용 가운데 50인이 이 불상의 조성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연기 지방에서 대규모의 불교신앙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지역 세력가들이 신라로부터 새로운 관등을 받은 후 향도(지식)들을 주도하여 이 석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석상의 조성과정은 이 지역 유민들이 새로이 관등을 수여받고 신라의 지방 세력으로 재편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674년 의안을 대서성으로 임명한 것 역시 문무왕이 일통삼한의 단합된 신라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생각된다. 김수태, 1999, 「新羅 文武王代の對服屬民 政策 -百濟遺民에 대한 官等授與를 中心으로-」 『신라문화』 16; 2003, 「연기지방의 백제부흥운동」 『선사와 고대』 19; 김주성, 2000, 「연기 불상군 명문을 통해 본 연기지방 백제유민의 동향」 『선사와 고대』 15; 윤선태, 2005, 「신라 중대말 하대초의 지방사회와 불교신앙결사」 『신라문화』 26 참조.

21) 『삼국유사』 권5, ‘혜통항릉’조.

(5) 근래에 명랑법사가 있어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해 왔으니<sup>22)</sup>

(6) 용궁에 가서 은밀히 보관되어 있던 경전을 다 배웠다.(신방, 『대승대집지장심륜경서』)<sup>23)</sup>

위의 명랑법사 용궁전법설의 사료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에 의해 “전설로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문제로, 금광사본기가 선무외삼장에 관한 기록 이후의 것이라면 이 용궁전법설은 선무외삼장의 來唐 시의 기록에서 파생 내지 모방한 전설”<sup>24)</sup>이라고 추찰한 바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당에서 돌아올 때 해룡의 청에 의하여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했다고도 하고, 그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받아 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명랑이 용왕으로부터 받았다는 황금은 『금광명경』의 호국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금광사는 그러한 금광호국사상을 신앙하려는 도량으로 보고 명랑이 용궁에 비법을 전해 준 것을 용수가 방등경전을 용궁에서 전수한 것(구마라집역, 『용수보살전』)<sup>25)</sup>에 비견하여 명랑이 용궁전법으로 신인종의 종조가 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26)</sup>

명랑이 신라로 전해 온 밀교는 잠밀계통으로, 帛尸梨密多 역의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 있는 밀교적인 비법으로 알려져 있다.<sup>27)</sup> 최근 5방신의 개념 등 중국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기도

22) 『삼국유사』 권2, ‘문호왕 법민’조.

23) 허남진 외, 2005, 『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 pp. 212~217.

24) 박태화, 1965, 「신라시대의 밀교전래고」 『효성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 pp. 69~70.

25) 『대정장』 권50, 184c.

26) 고익진, 김상현, 문명대 등의 위의 논문 참조.

한 견해도 있다.<sup>28)</sup> 명랑이 밀교를 용왕에게 전해주자, 황금 천 냥을 시주받아 그것으로 탑상을 장식하였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해주었다고 한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고국으로 오면서 잠행을 하여 자기 집 우물 밑으로 솟아나 오고 있다. 이는 그가 밀교 승으로神通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귀국이 어려워져서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신방이 쓴 「대승대집지장십륙경서」에 의하면 현장이 인도에 간 것을 “용궁에 가서 은밀히 보관되어 있던 경전들을 다 배웠다”<sup>29)</sup>고 표현하고 있어 당시인들이 용궁을 인도 내지 동남아 방향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더구나 명랑이 유학한 해는 632~635년 사이로, 이때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이 성하여 광동에서 탐마입저국까지 오가는 무역선 내지 상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sup>30)</sup> 그의 유학이 당과 동남아, 인도 방향 일대를 다녀온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 Ⅲ. 사천왕사의 창건

명랑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또 한 곳은 사

---

27) 박태화, 문명대, 고익진, 김상현, 한정호 등의 논문 참조.

28) 김태식, 2011, 「문두루법과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유물」 『신라사학보』, pp. 329~330.

29) 허남진 외, 2005, 『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 pp. 212~217.

30) 김복순, 2007. 9, 「혜초의 천축순례 과정과 목적」 『한국인물사연구』 8, pp. 176~180.

천왕사이다. 다음의 사료들은 그 사실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7) 총장 원년 무진년(668)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군사를 남겨 백제에 머물게 하고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신라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군사를 내어 막았다. (당)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薛邦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치려고 하였다. 문무왕이 듣고 두려워하여 법사에게 청하여 비법으로써 물리치게 하였다.(이 사실은 문무왕전에 실려 있다)<sup>31)</sup>

(8) 이듬해에 당 고종이 인문 등을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군사를 칭해 고구려를 멸하고도 우리를 해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 하고 곧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조련하여 薛邦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의상법사가 당에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인문을 찾아보니 인문이 그 사실을 알렸다. 의상이 곧 귀국하여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매우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방어책을 물었다. 각간 김천손이 아뢰기를 “근래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해 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라 하였다. 명랑이 아뢰기를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이때 貞州에서 사자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당나라 병사들이 무수히 우리 국경에 다달아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명랑을 불러 말하기를 “일이 이미 급박하니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명랑이 말하기를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고 瑜珈明僧 12인이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비밀법을 지으니, 그때 당나라와 신라의 병사가 교전하기도 전에 풍량이 사납게 일어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그 후에 절을 고쳐짓고 사천왕사라 하였는데 지금까지 壇席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국사에는 이 절의 개창이 調露 원년 기묘(679)에

31)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

있었다고 하였다】. 그 후 신미년(671)에 당나라가 趙憲을 장수로 삼아 5만 군사로 쳐들어왔으므로, 그 법을 쓴 즉 배가 전과 같이 침몰하였다.<sup>32)</sup>

명랑이 670년과 671년에 문두루비법을 실행하였던 곳에 신라통일의 기념성소로 삼기 위하여 679년(문무왕 19) 사천왕사를 건립하였다. 사천왕사는 현재 경주시 배반동 狼山에 폐사지로 남아 있는데, 근래 수차에 걸친 발굴로 점차 그 면모가 확인되고 있다. 사천왕이 거주하는 사왕천은 불교에서 사바세계의 중심지로 보고 있는 須彌山의 중턱에 위치하는 곳으로 그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다.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의 설화에서 낭산을 수미산으로 생각하려던 신라인들의 佛國土思想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곳은 선덕여왕이 知幾三事의 하나로 지적한 도리천 아래에 위치한 사천왕천으로 이미 거론된 바 있고, 그 전에 이미 안함(안흥)에 의해 예견된 바 있는 장소였다. 이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화상은 본국에 돌아온 뒤 참서를 한 권 지었는데, 그 활자가 흠어져 있어 만든 사람을 알기가 어렵고 그 종지가 깊이 숨겨져 있어 이치를 찾는 사람이 연구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부엉이가, ... 또 이르기를 “제1여주를 도리천에 장사지낼 일, 천리에 나아가 싸우던 군사가 패할 일, 사천왕사가 이루어질 일, 왕자가 고국에 돌아올 해, 대군이 삼국통일할 일”등을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예언한 것이었는데, (법사는) 똑똑히 눈으로 본 것처럼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sup>33)</sup>

32) 『삼국유사』권2, ‘문호왕 법민’조.

33) 『해동고승전』 권2, ‘안함’조.

(10) 선덕여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16년 동안 3가지 일을 예언하였다. … 셋째는 왕이 무병할 때에, 여러 신료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년 모월 일에 죽을 터이니 나를 도리천 중에 묻으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그 곳을 알지 못하여 어디냐고 물으니, 왕이 가로되 낭산 남쪽이라 하였다. 그 달 그 날에 이르러 과연 왕이 돌아가시자 낭산 남쪽에 장사지냈다. 그 후 10여 년에 문무대왕이 사천왕사를 왕릉 아래에 세웠다.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으니 비로소 대왕의 靈聖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함(안함)이 예언하였다고 한다.<sup>34)</sup>

(11) 한림학사 설모가 왕명을 받들어 비를 지었다. 그 명에 이르기를 “후를 도리천에 장사지내고, (사)천왕사를 세웠다. 괴상한 새가 밤에 울고, 군사들이 모두 아침에 죽었다. 왕자는 관문을 건너 (중국)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뵈고 5년간 외지에서 보낸 후 30세에 돌아오니, 뜨고 잠기는 輪轉을 지나 나나 어찌 면하겠는가? 나이 62세에 만선(도량)에서 입적하니 사신이 바닷길을 돌아오다가 스님을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고 하였다.<sup>35)</sup>

(9)는 안함(안함)의 참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참서는 『동도성립기』와 함께 『삼국유사』 등에 전하고 있다. 안함(안함)이 신라로 귀국한 것이 605년이고 그가 입적한 것이 640년이므로, 이 참서는 605~64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10)은 선덕여왕의 지기삼사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세 번째로 거론되는 사건이다. 선덕여왕은 죽으면서 도리천에 묻어줄 것을 유언하였는데 그곳이 낭산의 남쪽 신유림이라 하였다. 선덕여왕이 죽은 지 30여 년 만에 왕릉 아래 사천왕사를 짓게 되자 사람들은 여왕의 예언이 맞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천에 선덕여왕

34) 『삼국유사』 권1, ‘선덕왕지기삼사’조.

35) 『해동고승전』 권2, ‘안함’조.

의 능을 쓴 시기는 왕이 서거한 647년 정월 8일 이후 이므로, 여왕은 이 일을 646년 말 경에 이 일을 거론하였을 것이다.

(11)은 안함의 비문에 관한 것으로, 이 비문을 쓴 한림랑 설모는 설총에 비견된다. 그의 전기에 보면, “글을 잘 지었는데,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 다만 지금도 남쪽 지방에 더러 聰이 지은 비명이 있으나 글자가 缺落되어 읽을 수가 없으니, 끝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sup>36)</sup>고 하여 그가 지은 비문이 여럿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당시 유학자로서 승려비문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은 설총 내지 강수 정도인데 설총은 신문왕대에 「화왕계」를 짓는 등 흔적을 남기고 있어 그가 신문왕대 이후에 이 비문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안함의 입적은 62세인 선덕여왕 9년(640) 9. 23일의 일이었지만, 그의 비는 40-50년이 지난 이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사천왕사가 건립될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안함에 의해서 일찍부터 거론되고 있었고, 선덕여왕 역시 자신이 죽으면 안함이 예견한 사천왕천 위에 위치한 도리천인 낭산에 묻어줄 것을 유언함으로써 안함의 예견에 대해 공감을 하고 나름의 예견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견을 하였던 안함의 공적은 수 십년이 지나서야 인정이 되고 그의 비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 십년 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당시 신라와 국제 관계를 주목해 보면,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정국에 이어, 나당 연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나당전쟁이라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소용돌이 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신라는 수나라나 당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순탄했을 때와는 달리 나당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원

---

36) 『삼국사기』 권46, ‘설총’전.

광과 안함, 자장 등을 계승한 명랑과 원효 등이 신라의 자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행보를 함께 하였다.

신라는 자주권 확보에 성공을 하였고, 당과의 소강상태에서 성덕왕 이후 다시 관계를 재개하였다. 이 때 수 유학승 안함의 일은 당나라와의 변화된 정국에서 참서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안의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사천왕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 추정된다.<sup>37)</sup>

#### IV. 신인종 성립의 문제

명랑이 신라 신인종의 조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명랑을 통하여 서민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밀교를 護國攘兵적 형태로 채용하여 밀교의 여러 가지 사면적 기능 중에서도 전쟁수행과정에서 특히 절실한 천문·기상적 부면을 강조함으로써 민중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인종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신라성립설과 고려태조시기성립설이 대두되어 있다.

우선 신라 성립설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자.

(12) 명랑은 선덕왕 원년(632)에 당나라로 건너가 貞觀 9년(을미, 635)에 돌아왔다. 總章 원년(무진, 668)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남은 군사를 백제에 머물게 하고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신라인이 알고 군사를 내어 막았다. (당)고종이 듣고 크게 노하여 薛邦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치려고 하였다. 문무왕이 듣고 두려워

37) 김복순, 2006,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43, pp. 187~190.

하여 법사에게 청하여 비법을 열어 물리치게 하였다(이 사실은 문무왕전에 있다). 이로 인하여 신인종의 시조가 되었다.<sup>38)</sup>

신라는 당이 고구려의 옛 땅에 남아 있던 당군을 강제로 철수시킨 신라에 보복하기 위해 설인귀로 추정되는 薛邦을 대장으로 하는 신라 침공을 계획하고 있음을 사전에 의상에 의해 전해 듣게 되었고, 신라 문무왕은 김천존에 의해 추천된 명랑에게 그 계책을 묻게 되었다. 명랑은 낭산 남쪽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창건하고 도량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나라 군사가 국경에 다다랐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게 하고, 자신을 상수로 瑜伽明僧 12인과 함께 문두루비법을 행하자, 당나라 전함은 신라와 교전하기도 전에 사나운 풍랑으로 침몰되었다. 다시 당군이 침략하였으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격퇴시켰다.<sup>39)</sup>

이 공로로 인하여 명랑은 신인종의 조사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신인종의 성립을 680년경으로 보기도 하고,<sup>40)</sup> 명랑의 금광사 창건이 650년 전후인 것을 들어 신인종의 성립도 이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41)</sup> 신라의 신인종은 명랑 이후에

---

38)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

39) 이상훈, 2011, 「나당전쟁기 문두루비법과 해전」 『신라문화』 37에 의하면, 이에 대해서 최근 670년과 671년은 바람이 강하게 불던 시기여서 전선의 좌초 위험이 상당히 높았는데, 신라는 당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당 수군의 취약점을 잘 알아 이에 대응하는 방어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두루비법이 시행되었고 실제 당의 수군은 침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신라 조정은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천왕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40) 퇴경, 1929, 「신인종과 총지종」 『불교』 59, pp. 4~5.

41) 문명대, 1976, 「신라 신인종의 연구-신라 밀교와 통일신라사회」 『진단학

도 護國·護法과 결부되어 교세를 떨쳤다.

다음은 고려 태조 당시 성립설의 내용이다.

(13) 고려 태조가 창업할 때에 또한 해적이 와서 소요하므로 안혜와 낭옹의 후예인 광학·대연 등 두 대덕을 청하여 祓禳鎮壓할 법을 지으니, 모두 명랑의 계통이었다. 그러므로 스님을 합하여 위로 龍樹에 이르기까지 9祖가 되었다【本寺記에 3師가 울조가 되었다 함은 자세치 않다】. 또 태조가 현성사를 개창하여 일종의 근거를 삼았다.<sup>42)</sup>

신인종의 고려성립설은 위의 기록에 보이는 ‘태조가 현성사를 개창하여 일종의 근거를 삼았다’는 내용을 중시한 것으로, 이 때 9조를 추증하면서 신라의 명랑을 종조로 하였다고 본 것이다.<sup>43)</sup> 즉 고려 태조가 해적의 침범을 물리치려고 명랑의 후예인 광학과 대연을 청하여 문두루비법이라는 신인법을 베풀게 한 일이 있었고, 이 두 승려를 위하여 현성사를 세웠는데,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성립된 종파가 신인종<sup>44)</sup>이라는 것이다.

태조가 직접 현성사 창건에 간여하여 신인종의 근거로 삼은 기록

---

보』 41, p. 191.

42)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

43) 고익진, 1989, 「초기 밀교의 발전과 순밀의 수용」 『한국고대불교사상사』, p. 412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되던 명랑 계통의 밀교가 고려 초에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서윤길, 1990, 「고려 유가·울·신인 등 諸宗의 성격과 그 전개」 『한국사론』 20(고려시대의 불교), 국사편찬위원회, p. 125.

44) 신인종은 조선 초기의 태종 6년(1406) 3월에 있었던 의정부의 틈에 신인종이 11종파 중의 하나로 보이고 있으므로 고려 말까지 종파가 계승되어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있으므로, 이 기록만으로 보면 고려성립설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신라시대에 신인종 사찰과 신인종 소속의 승려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신라의 신인종 사찰로 금광사·사천왕사·원원사·돌백사를 들 수 있다.

(14) 또 신라 서울 동남쪽 20여 리에 遠源寺가 있으니, 세간에 전하기를 ‘安惠 등 4대덕이 김유신·金義元·金述宗과 함께 발원하여 세운 것이며, 4대덕의 유골은 모두 절의 동쪽 봉우리에 모셨으므로 이로 인해 四靈山 祖師巖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4대덕은 모두 신라 때의 고승이었다고 하겠다.

(15) 堧白寺柱貼注脚에 실려 있는 것을 살펴보면, ‘경주호장 巨川の 어머니는 阿之女이고, 아지녀의 어머니는 明珠女이다. 명주녀의 어머니인 積利女의 아들은 광학대덕과 大緣三重(옛날 이름은 善會임)이다. 형제 2인은 모두 신인종에 귀의하였다. 長興 2년(신묘, 931)에 태조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여가를 따라다니면서 분향하고 수도하였다. (태조는) 그 노고를 포상하여 두 사람 부모의 忌日寶로 堧白寺에 전답 몇 결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광학과 대연 2인은 태조를 따라 서울로 들어온 이들이며, 안법사 등은 김유신 등과 함께 원원사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광학 등 두 사람의 뼈가 또한 여기에 안치되었을 뿐이지, 4대덕이 모두 원원사를 세웠다거나, 또 모두 태조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자세히 살필 것이다.

신인종과 관련하여 신라의 서울에 있던 원원사라는 사찰이 등장하고 있다. 이 사찰은 안혜·낭용·광학·대연이 김유신·김의원·김술종과 함께 원을 발하여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4대덕의 유골이 사찰 동쪽 봉우리에 묻혔기 때문에 사령산 조사암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돌백사는 광학과 대연의 사실을 신고 있다. 이들의 어머니가 積利女이고, 그 딸이 明珠女로 광학과 대연과는 동기시간이고, 그 딸이 阿之女이고, 그의 아들이 경주호장 巨川이다. 광학과 대연이 931년에 태조를 따라 고려에 갔지만, 적리녀는 신라 왕경에 적을 두고 있었고, 그 적이 명주녀-아지녀로 이어지다가 거천이 경주호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들이 신라 왕경인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내용이며, 광학과 대연의 부모를 위한 기일보가 돌백사에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신라부터 신인종 소속의 사찰임을 추정하게 한다.

다음으로 신라의 신인종과 관련된 승려로 거론되고 있는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6)-1. 乃請安惠·朗融之裔廣學·大緣等二大德, 作法禳鎮, 皆朗之傳系也. 故并師而上至龍樹爲九祖(本寺記三師爲律祖, 未詳)
- 2. 諺傳, 安惠等四大德, 與金庾信·金義元·金述宗等, 同願所創也. 四大德之遺骨, 皆藏寺之東峰, 因號四靈山祖師岳云, 則四大德皆羅時高德
- 3. 廣等·大緣二人, 隨聖祖入京者, 安師等, 乃與金庾信等創遠源寺者也.<sup>45)</sup>

이들 승려들의 이름은 안혜낭용과 광학대연이다. 광학대연을 광학과 대연의 2인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으나, 안혜낭용은 안혜와 낭용의 2인으로 보는 견해<sup>46)</sup>와 안함·혜통·명랑·용천사의 4인으로 보는 견해<sup>47)</sup>로 나뉘어져 있다.

---

45)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  
 46) 강인구 외, 2002, 『역주 삼국유사』 4, 이회, p. 230의 주22 참조.  
 47) 村上四男 撰, 1995, 『三國遺事考證』 下之三, 塙書房, p. 34.

안혜와 낭융을 2인으로 보는 입장은 (16)-2의 安惠等四大德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혜낭융을 4인으로 보는 견해는 안을 안함, 혜를 혜통, 낭을 명랑, 융을 융천사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융천사는 진평왕대의 승려로 혜성이 心大星을 범하자 혜성가를 지어 노래하니 곧 괴성이 없어지고 일본의 군사를 물러가게 한 사실<sup>48)</sup>이 보이므로 국가적인 대사와 관련하여 신인종의 승려로 본 듯하다.

실제 (15)의 安師等の 표현이 보이고 있어 이들을 安·惠·朗·融의 4인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안혜등 4대덕은 안혜와 낭융 그리고 광학과 대연으로 이들의 유골이 모두 사령산에 묻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자의 주장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종파성립의 문제는 문명대의 주장에서 시작되어<sup>49)</sup> 한국중세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언급되어 왔다. 채상식은 한국중세불교의 이해방향에서 신라 통일기 종파 성립과 그 의미에 큰 할애를 하고 있다.<sup>50)</sup> 그는 종파불교를 곧 중세불교로 보고, 신라 통일전쟁기의 정치·경제·사회 변동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써 화엄종·법상종·신인종의 성립시기를 7세기말에서 8세기 초로 설정하고 있다.

현성사는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에 광흥사, 미륵사, 내천왕사, 개태사 등과 함께 창건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sup>51)</sup> 이 해는 고려가

48) 『삼국유사』 권5, ‘융천사혜성가’(진평왕대)조.

49) 문명대, 1974, 「신라 법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감산사 미륵보살상 및 아미타불상과 그 명문을 중심으로(상·하)」, 『역사학보』 62, 63, 역사학회, pp. 75~105, pp. 133~162.

50) 채상식, 2003, 「한국중세불교의 이해방향과 인식틀」, 『민족문화논총』 27, p. 15.

51) 『고려사』 권2, 태조 19년 “是歲 創廣興現聖彌勒內天王等寺 又創開泰寺於連山”.

통일을 마무리하고 통일 이후의 지침을 반포하는 등 기념비적인 해로, 이들 사찰들은 통일을 이룬 기념으로 창건된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sup>52)</sup> 특히 현성사는 신라의 사천왕사의 문두루도량을 행하였던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태조가 931년 경주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 함께 온 광학과 대연이 해적의 소요를 진압할 법을 지었는데, 이는 견훤의 수군이 예성강 일대를 공략하였을 때 이들이 문두루도량을 열어 공을 세우자 명랑계통의 신인종 승려들을 포상하면서 이들을 개경에 수용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운 사찰이 현성사로서, 밀교종파인 신인종의 본산으로 삼았다는 것이다.<sup>53)</sup>

그런데 광학과 대연은 출가하면서 신라의 신인종 소속 승려로서

- 
- 52) 한기문, 2000, 「고려시대 개경 현성사의 창건과 신인종」 『역사교육논집』 26, pp. 476~477.
- 53) 한기문의 위의 논문에 의하면, 현성사는 호국의 뜻을 간직한 밀교의 사찰로,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자주 행차하였던 곳이다. 고려 의종 때 사찰의 명칭을 바꾸었으며, 1130년(인종 8) 4월에 문하시중 이공수가 양부 대신과 회의하여 이 절에 齋를 베풀고 국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1176년(명종 6) 5월 명종이 친히 제석재를 열었고, 고종은 1217년(고종 4) 4월과 12월에 문두루도량을 열었으며, 1229년 5월 기우제를 지냈다. 고종은 강화도로 천도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 절에 행차하기를 잊지 않았다. 원종도 자주 이 절에 들러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였는데, 1273년(원종 14) 5교 양종의 승려들을 모아 도량을 열고 南山宮이 적으로부터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1275년(충렬왕 1) 충렬왕이 공주와 더불어 이 절에 행차하여 원나라 황제의 축수를 기원하였고, 1278년 4월 이 절의 新宮을 복원하도록 하였으며, 1295년 이 절에 행차하여 죄인들을 놓아주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1297년 공주와 함께 이 절에 들러 궁중에 있는 쌀 100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사하도록 명하고 공주의 복을 기원하였다. 충숙왕과 공민왕의 행차가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 중기까지 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태조를 따라 고려의 수도로 가서 수가승려로서 신인종 활동을 하였고, 태조는 그 공을 인정하여 고려 신인종의 본사인 현성사를 세우게 한 것이다. 이렇게 신라에서는 이미 신인종 계통의 승려들이 대를 이어 활약을 하고 있었고, 명랑은 신인종 조사로 추대되어 있었다. 그리고 명랑의 위로 9조가 있었고, 3사가 율사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인종은 신라시대에 성립되어 있던 종파로서, 태조가 고려적 시각으로 다시 현성사를 세워 고려의 신인종으로 재개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V. 맺음 말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에는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로서 a) 金光寺本記, 本寺記 b) 僧傳 c) 文武王傳(인용), d) 堠白寺柱貼注脚이 나오고 있어, 간단한 자료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료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금광사, 금강사, 금우사는 모두 한 사찰의 이칭으로 보고, 그 근거로서 고려에서의 ‘금강명경도량’이 『금광명경』과 『십륜경』의 금강장보살이 합해진 호칭으로 보고, 금강명경과 금광명경이 서로 섞여서 쓰여졌으며 서경의 금강사가 신인종 계통의 사찰임에도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사』에 보이는 ‘金剛明經道場’ 등의 용례를 24개 추려서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명랑은 그 어머니가 청색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고 태어났는데, 승려들이 태몽으로 보주를 삼키거나 본 사례를 함께 들었

다. 그의 어머니인 남간부인은 소판 김무림의 딸로, 자장법사의 누이동생인 법승랑으로 불린 진골이었다. 남간부인과 관련이 있는 남간사는 현재 당간지주만 남아있는 폐사지로 이 일대가 이들의 장원 내지 영지였을 것이며, 그의 형인 국교대덕과 의안대서성 역시 문무왕대인 674년을 전후하여 활약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명랑이 다녀온 용궁이 인도 내지 동남아 방면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사천왕사 창건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보았다. 사천왕사의 창건은 이미 640년 이전 안함에 의해 예견된 사실로, 선덕여왕이 도리천에 장사지내라는 예언으로 그 입지가 더욱 굳혀졌고, 명랑에 의한 문두루비법의 실행으로 창건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안함의 비가 뒤에 세워지고 그의 예언이 참서의 형식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수당의 교체정국에 따른 신라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정리하였다. 신인종 성립의 문제는 신라성립설과 고려조 성립설을 비교하고 신라성립설에 무게를 실어 살펴보았다.